

중장년 근로여성의 생활특성에 기초한 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한 혜 빈** · 정 순 들***

본 연구는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는 중장년 근로여성의 생활특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경기도에 있는 7개의 도시와 2개의 군이 편의상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총 471명의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었고, 자료분석은 주로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중장년 근로여성들의 가족구조적 특성을 보면 대부분 핵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고생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들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중장년 근로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의 복지적 현황을 보면 식당이외에는 복지시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외의 다른 곳에서 복지 프로그램을 찾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직장내의 복지적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끝으로 중장년 근로여성들이 바라는 복지 프로그램은 알뜰구판장, 의료서비스, 그리고 상담서비스 등이었다. 결론적으로 중장년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은 그들의 가족구조와 작업장내 복지시설, 그리고 복지욕구의 충분한 고려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I. 서 론

산업화와 함께 여성의 경제 활동참가는 끊임없이 증가해 왔으며, 이에 따른 여성의 역할도 커져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를 기점으로 여성 노동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대되어 왔으며, 이들이 오늘날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데 주도적인 역할과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선성장 후분배의 경제 성장 우선 정책에 의하여 여성근로자들의 삶의 질은 도외시되어 왔다.

특히 여성근로자들 가운데서도 중·장년 여성근로자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도외시 되어왔을 뿐 아니라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이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즉 이들은 낮은 임금, 장시간노동, 차별임금, 가정과 직업을 병행하는데 따르는 곤란, 자녀양육의 어려움, 여가시간의 부족, 시부모 부양의 부담감 등으로 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 본 연구는 1996년 경기도 여성정책실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있음에도 이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 산업사회의 구성원으로 누려야 할 복지적인 대책은 간과되어 왔다. 이와 같이 관심의 대상에서 중장년 여성근로자들이 제외되어 온 이유는 이들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 인력군을 '잠시 쓰고 버리는 광범위한 주변 노동력군'이나 '예비 미숙련 임시노동자' 등으로 인식하는 기존의 안일한 사고에서 기인한 것이다 (박경숙, 1996).

그러나, 최근 들어 IMF 사태와 함께 기업의 국가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여성인력의 활용은 경쟁력회복과 국민경제 재도약에 있어 필수조건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한 여성 1인당 평균자녀 출산수는 1.7명으로 이미 인력부족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정부는 여성들이 일하지 못함으로써 유발되는 자산손실이 연간 17조원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상공자원부, 1994). 특히 급속한 사회변화와 의식변화로 인하여 3D 업종을 회피하는 경향이 확산되어 제조업분야에서 남성근로자의 인력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의로 퇴출할 욕구가 거의 없는 중장년 여성근로자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야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생산성 제고에 전력을 다해야 함은 물론 인력의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관리 및 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인력 경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이다 (김수곤과 심경옥, 1984: 13).

한편 경기도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성인력의 활용이 저조한 편이며, 여성취업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30세-54세의 중장년 취업이 54.3%로 (박경숙, 1996), 제조업 부분의 집중현상이 두드러진다. 1994년 현재 전국 제조업체의 23.7%가 경기도내에 소재하고, 경기도내 5인 이상 사업장 여성근로자 28만 3천명 중 73%가 제조업 종사자임 (노동부, 1995) 을 감안할 때에, 중장년여성 근로자를 위한 복지적 대책은 매우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와 3F¹⁾ 시대에 경기도내의 중장년 여성근로자의 생활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복지 프로그램 욕구를 토대로 안정된 작업환경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미래의 인력수급에 대비한다는 점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그간 중장년의 기혼 여성근로자들은 전통적인 가정 내에서의 역할 수행과 경제활동이라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음 (이은주, 1994) 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만 하였다. 또한 종래의 연구들 역시 주로 미혼 여성근로자에 대한 성차별이나 기혼 여성근로자의 육아보호제도에만 관심을 두어왔을 뿐 이미 출산기를 끝내고 자녀 양육기에 있는 중장년 근로 여성들의 복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이들 여성들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 근로여성의 취업이 두드러진 경기도를 중심으로 중소기업내의 중장년 여성근로자의 생활특성 및 복지 프로그램 욕구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복지 프로그램의

1) 3F 시대란 여성 (female), 감정 (feeling), 가상 (fiction) 이란 세단어의 첫글자로 이루어진 말로 여성 인력이 중시되는 21세기 정보·지식사회를 특징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개발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여성취업의 변화와 특성

1) 산업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취업

한국의 산업화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계획에 따라서 매우 급속히 진행되기 시작하여 불과 30여년 사이에 1차산업 중심에서 3차산업 중심으로 바뀌었으며, 따라서 여성근로자의 산업별 분포도 급속히 변화하였다.

1960-80년대까지의 기간동안에 핵가족화가 이루어졌고, 가족주기의 변화로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은 '65년 37.25%에서 '85년에는 41.9%로 증가하고, 여성의 피용율도 '65년 20.9%에서 '85년 48.2%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박숙자, 1996 : 237). 이 시기의 한국의 산업화 정책은 섬유산업과 전자조립으로 대표되는 단순 노동 집약으로 풍부한 양질의 여성노동력은 수출산업의 기반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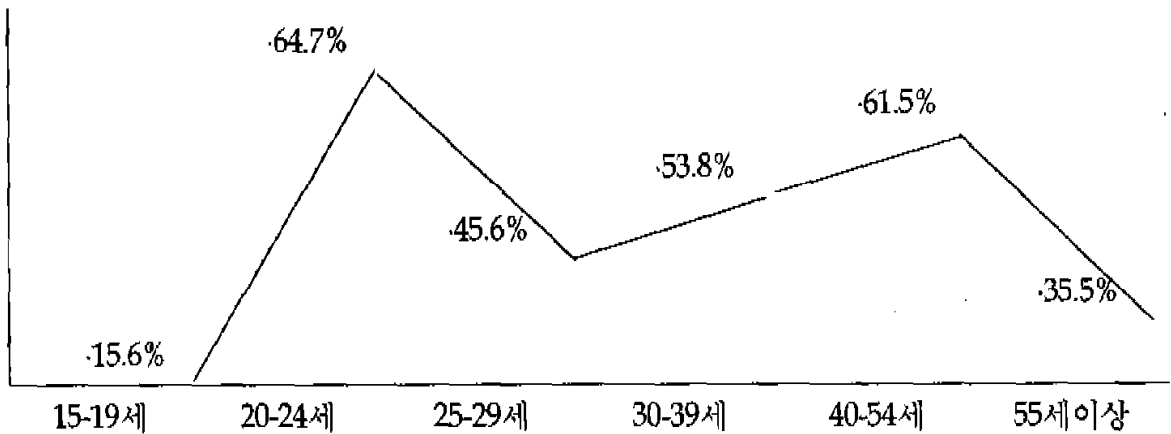
1965년부터 1991년 사이의 여성취업자의 산업별 분포의 변화를 보면 1차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63.9%에서 18.6%로 급속히 감소한 반면에, 2차산업 종사자의 비율은 8.2%에서 27.5%로 그리고 3차산업 종사자의 비율은 27.9%에서 53.9%로 증가하여 현재 여성취업자의 과반수 이상이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의 증가가 여성지위나 복지 상태의 향상으로 연결되지는 못하였다 (이혜경, 1990).

이들 여성취업자중 당시 직업별로 보면 1965년에는 농림수산직이 61.8%로 가장 많고, 다음이 판매직, 생산직, 서비스직 순이었으나, 1991년에는 생산직이 가장 많아서 24.8% 정도이며, 농림수산직, 서비스직, 판매직, 사무직 등으로의 다양한 직업에 분산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생산직을 비롯하여 사무, 판매 서비스직에는 상당히 많이 진출한 반면 전문직으로의 진출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다수의 여성취업은 아직도 고용이 불안정하며 단순노동인 저임금직종, 비공식부분이나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연령 및 혼인과 여성의 취업

여성취업자의 양적 증가와 함께 주목할 점은 여성노동력의 질적인 변화이다. 그중에서도 연령에 따른 변화인데 요즈음에는 10대의 취업율은 매우 낮으며 20대 초반에는 높으나 30대 전반

기까지의 자녀 양육기에는 다시 낮아지다가 30대 후반부터 취업률이 증가하는 전형적인 M자 모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94년 현재

즉 <그림 1>을 보면 여성의 재취업율은 결혼, 육아기인 23세에서 35세때 하락하다가 40세에서 54세에 이르러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0-1970년대 말까지는 젊은 미혼여성들 (16세-24세) 이 미숙련·노동 집약적인 경공업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후 198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특성이 변화했다. 즉 전체 여성 경제활동 인구중 24세 이하의 비율이 감소하고, 가임기에 있는 25세-29세 연령층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노동부, 1994 : 34-35).

이와 같은 연령별 취업양상의 변화로 인한 중·장년여성의 노동시장에의 진입증가를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여성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로 상업학교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취업연령이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으로 늦어진 점과 여성취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자녀 양육기가 끝나는 30대 후반부터 재취업이 증가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독점자본주의 하에서 소비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남편의 임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부인들의 취업이 불가피한 점도 지적할 수 있겠다.

여성취업자의 취업동기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여성스스로의 취업에 대한 인식변화를 알 수 있는데 (박숙자, 1996 : 243), 생계유지와 가계 보탬을 목적으로 취업한 비율이 55.1%에서 52.4%로 감소한 반면에 자신의 적성을 활용하거나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 취업한 비율은 17.15%에서 20.2%로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 자신의 적성을 살리기 위하여 취업하며 학력이 낮을수록 경제적 필요성에 의하여 취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이 볼 때에 여성들의 교육기회가 점차 확대될수록 단순히 경제적 필요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취업하기보다는 자신의 적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취업하는 경향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취업여성의 평균연령이 높아짐과 함께 나타나는 주목할만한 것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증가율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30대 후반부터 경제활동참가율이 다시 증가하는 것은 기혼여성 등이 자녀 출산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55세 이하 고령층 여성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 오히려 경제활동 참가율이 미국보다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노후연금제도와 산업구조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로 해석된다.

2. 기혼 취업여성의 복지욕구

1992년 현재 총 여성취업자중 기혼여성의 비율은 76.7%로 나타나고, 직업별로는 전문직 45.2%, 사무직 26.8%, 서비스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 84.3% 농업과 어업 98.1%, 생산관리직은 86.3%로 나타나서 전문직과 사무직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여성취업자의 절대다수가 기혼 여성으로 변화하였다 (여성개발원, 1994 : 176-177).

이와 같이 취업한 기혼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현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복지적인 대책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취업여성의 복지욕구는 가정과 일터라는 이중부담에서 오는 문제점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자녀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난다. 기혼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육아문제는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황영자, 1990).

김양희(1991)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초등학교 학부모이면서 맞벌이 부부의 부인들을 대상으로 제시된 9개의 프로그램 (① 학교에서 방과후 학습을 도와주는 학습지도 프로그램, ② 학교에서 기능 및 예능교육 프로그램, ③ 학교급식 실시, ④ 공공 단체에서 청소년을 위한 단체 생활 학습 및 각종 취미활동 프로그램, ⑤ 부부를 위한 레크레이션,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⑥ 여성의 직업문제에 대한 생활, 법률상담소, ⑦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활상담 전화, ⑧ 노인을 맡아 주는 곳, ⑨ 관공소 및 은행 등의 야간창구 개설) 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급식의 실시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우선 순위가 가장 높았으며, 부부를 위한 레크리에이션과 주간 노인보호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의 우선 순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의 연구결과에서는 자녀문제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Hegen & Davis (1992) 는 중장년 여성의 노동 참여가 높은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이들 여성들은 노인에 대한 보호 담당자로서 큰 역할을 가지고 있어 이로 인한 갈등이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이 혜 경 (1997: 128-129) 은 취업여성의 복지욕구를 다음의 5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일차적 모성보호와 관련된 복지욕구로 산전산후휴가, 유급유산휴가, 임신검진휴가, 육아휴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욕구는 사회적 재생산의 기초가 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가 요청된다. 둘째, 탁아욕구로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에게 해당된다. 셋째, 자녀교육관련 욕구로 자

녀 숙제 점검, 학교 준비물 점검, 도시락 준비 등이 해당된다. 넷째,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 업무 대행에 관한 욕구로 중장년 여성의 경우 이에 대한 욕구가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섯째, 가사노동에 관한 것으로 집안일과 직장생활이라는 이중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취업자의 욕구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들은 여성취업자가 겪는 집안에서의 일과 직장에서의 일에 대한 이중고에 대해 역설하면서 집안 일에 대한 부분에만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취업한 중장년 여성만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특성과 복지 욕구에 집중하고 있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경기도 취업구조의 특성과 중장년 근로여성

1) 경기도와 중소기업의 일반적 특성

경기도의 면적 규모는 전국토의 12.2%에 달하는 비교적 큰 지역사회 단위이다. 인구는 1994년 12월 31일 현재 743만 8,262명으로 전국 인구의 16.3%를 차지하고 있다. 가구당 인구수는 1974년 5.2명에서 1994년 3.2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회 변화와 핵가족화 현상에서 기인한다. 도시와 농촌인구의 구조는 1974년에는 51.1% 대 48.9%였는데 1994년에는 84.8% 대 15.2%로 농촌 인구는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1994년 말 현재 경기도내에 등록된 제조업체는 18,355개로 전국의 약 23.7%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기도에 제조업체가 밀집하는 것은 경기도지역은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 등 편리한 교통망과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서울, 인천, 기타 위성 도시 등 거대한 배후 시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또한 지리적으로 중국과 마주보고 있어서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대 중국교역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체의 규모별로 대·중·소기업을 분류해보면 일반적으로 소기업은 20인 이하, 중기업은 21인 이상에서 300인 이하, 대기업은 그 이상이 된다. 경기도는 <표 1>에서와 같이 대기업이 213개 업체로 1.2%, 중소기업이 6,867개 업체로 37.3%, 소기업이 11,275개 업체로 61.5%의 구성비를 갖고 있다 (경기도, 1995). 따라서 중소기업이 전체기업의 98.8%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에 비해 업체수는 2,820개 업체 (18.1%) 가 증가하였고, 종업원수는 81,822 (11.9%) 이 증가하였는데 이처럼 업체수와 종업원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1993년 11월에서 1995년 5월중 실시한 조건부 등록공장 및 무등록공장 등록시행에 따라 무등록 업체가 제도권 안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상공자원부, 1994 : 257).

<표 1> 경기도내 제조업체 공장등록 현황

년도별	계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공장수	종업원수	공장수	종업원수	공장수	종업원수	공장수	종업원수
95	18,355 (100%)	769,357 (100%)	224 (1.2%)	214,455 (27.9%)	6,666 (36.3%)	384,162 (49.9%)	11,465 (62.5%)	170,742 (22.2%)
93	15,535	687,477	223	195,941	6,246	376,966	9,066	114,570
증감	2,820	81,882	1	18,514	420	7,196	2,399	56,172

자료 : 경기도 공업과, 1995

한편 기업체의 업종별로는 <표 2>와 같이 조립금속이 4,151개 업체로 22.6%, 섬유가 1,685개 업체로 9.2%, 비금속 광물이 1,772개 업체로 9.7%, 식품이 1,159개 업체로 6.3%, 화학이 1,053개 업체로 5.7% 등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업종별 제조업체 현황

계	식품	섬유	목재	종이인쇄	화학	비금속광물	조립금속	기타
18,355업체 (100%)	1,159 (6.3)	1,685 (9.2)	400 (2.2)	1,021 (5.6)	1,053 (5.7)	1,772 (9.7)	4,151 (22.6)	7,114 (38.7)

자료 : 경기도 공업과, 1995

2) 경기도내 중장년 근로여성

경기도의 고용동향과 취업구조를 보면 경제활동 참여율은 63.7%로 서울의 63.5%, 전국 61.7% 보다 높으며,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통계청, 1995).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현황을 보면, 경기도 전국 평균 41.5% 보다 낮은 38.4%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 인력의 활용이 저조함을 의미한다. 이를 <표 3>에서 연령대로 보면 15-24세의 미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후 출산기까지의 25-34세의 연령층은 전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 여성에 해당되는 35세부터 44세의 연령층은 다시 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여성의 취업 특성을 요약해 본다면 경기도 여성근로자의 결혼·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퇴출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반면, 중장년 여성 임금근로자의 재취업이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김태홍, 1996). 기업들도 이들 여성인력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 이후 제조업 인력난에 따른 중장년층 여성인력의 활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혼여성들의 참여가 활발한 소규모 자영업체나 기업체의 창업을 통한 취업이나 가족사업체의 취업을 통한 중장년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여는 제조업 등의 사업체의 참여에 의한 것보다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표 3> 지역별, 연령별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연령	전체			경기도		
	전지역	시부	군부	전지역	시부	군부
15-19	12.6	12.6	12.4	17.4	17.3	16.2
20-24	56.8	56.0	61.4	60.1	59.9	59.7
25-29	38.7	37.3	47.3	31.9	30.1	36.3
30-34	38.6	34.8	57.8	33.0	28.5	46.2
35-39	48.2	43.1	71.9	46.2	38.9	62.2
40-44	53.3	46.6	80.2	52.6	44.4	70.8
45-49	56.0	46.7	82.5	55.7	47.5	70.0
50-54	54.9	40.2	83.1	50.7	36.1	66.1
55-59	51.1	30.9	80.0	43.2	25.4	61.3
60-64	41.1	19.7	71.2	30.0	12.2	50.0
65이상	17.7	6.3	32.3	10.9	3.3	19.0
전체	41.5	36.0	59.1	38.4	33.3	48.1

자료 : 통계청, 1993; 김태홍, 1996에서 재인용

경기도의 여성고용창출을 경기도내의 지역별로 보면 5개시 즉 수원, 부천, 안산, 안양, 성남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기도내 사업체의 13.7%가 부천에 있으며, 안산 8.4%, 안양 7.3%, 수원과 성남이 각각 6.9%로 전체 사업체의 43.2%가 이들 5개시에 분포하고 있다. 이들 5개시는 주요 여성 취업업종인 제조업, 도소매업, 금융업, 교육, 보건, 개인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기도 여성취업자의 약 50%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경기도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의 35세이상 중장년 여성근로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도내 전체 기업중 중소기업이 약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제조업체의 약 24%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고, 5인 이상 사업장 여성근로자의 약 75%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사업장을 선정하였다. 중장년 여성근로자를 35세 이상으로 선정한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나타내 주는 M자 곡선상 출산이후인 35세에 이르러 취업률이 다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집방법은 유의표집법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경기도청내 여성정책실과 공업진흥계의 협조로 경기도 여성취업자의 약 50%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5대 도시를 중심으로 작업장을 선택하였다. 최종적으로 시부 7개 지역 (수원, 안산, 성남, 안양, 부천, 시흥, 광명) 과 군부 2개 지역 (안성, 용인) 중소기업체에서 취업하고 있는 여성근로자가 표집되었다.

2.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1996년 9월 30일부터 10월26일까지 주로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중장년 근로여성들의 생활특성과 복지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를 위해 사용된 조사도구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가족구조적 특성, 직장내의 복지현황, 복지 프로그램 욕구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설문지였다. 일반적 사항으로는 연령과 학력이 포함되었고, 가족구조적 특징으로는 혼인상태, 가족의 소득, 가족의 형태, 가족수, 자녀의 학력, 가족생활과 문제상담대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직장내 복지시설 현황으로는 취업동기, 직장내 복지시설여부와 그 만족도, 직장외 복지시설의 이용현황 등이 포함되었다. 복지프로그램 욕구는 나열된 13개의 프로그램중 3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면접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학과에서 사회조사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을 면접요원으로 선발하였으며, 이들에 대해 연구계획, 연구목적, 연구일정, 설문지 내용, 면접요령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면접조사에 임하도록 하였다. 조사원들은 경기도내에 소재한 각 지역 42개의 중소기업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중장년 여성근로자들을 면접하였고, 최종 471 사례가 수집되었다.

3. 자료분석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WIN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Chi-Square) 등 서술적 통계치를 주로 사용하였다.

IV. 조사결과의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취업별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취업특성을 조사대상자가 속한 사업체의 산업별, 규모별, 도시별로 나누어 < 표 4> 에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별로는 조사대상자가 모두 제조업체에 속하고 있었

<표 4> 조사대상자의 취업 특성

	분 류			빈 도	백분율(%)
업종별	식	품	업	45	9.6
	섬	유	업	127	27.0
	화	학	업	34	7.2
	기	및	속	25	5.3
	계	금	자	108	22.9
	전	전	판	25	5.3
	종	인	출	107	22.7
기		타			
규모별	소	기	업	99	21.0
	중	기	업	372	79.0
도시별	시	부	수	68	14.4
			안	47	10.0
			성	50	10.6
			안	109	23.1
			부	98	20.8
			시	32	6.8
			광	5	1.1
	군	부	안	45	9.6
			용	17	3.6
			성		
	인				
	계		471	100.0	

는데 이를 업종별로 세분해보면 섬유업이 27.0%, 전기 전자가 22.9% 로 많았다. 규모별로는 중기업과 소기업을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중기업으로, 50인 미만은 소기업으로 분류할 때, 응답자의 대다수인 79% 가 중기업에 속해 있었고, 21%는 소기업 근로자였다. 도시별로는 9개의 시부와 군부로 나누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안성과 용인을 제외한 나머지 7개가 시부였다. 안양에 속한 조사대상자가 23.1%, 부천이 20.8%, 수원이 14.4%, 성남이 10.0%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부와 군부로 나눌 경우 시부가 86.8%, 군부가 13.2%가 되었다.

2) 개인적 특성

조사대상 중장년 여성근로자의 연령과 학력별 분포는 <표 5>와 같았다. 연령분포는 35세부터 67세 였으며, 이들 중 41세에서 50세의 연령층이 45.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5세에서 40세의 연령층이 43.4%로 이 두 연령층이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인 89.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본 조사의 표본이 중장년 여성근로자를 잘 대표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42.7세 였다.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중졸이 39.7%로 가장 많고, 고졸 30.9%, 국졸 27.5%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은 0.6%로 극소수였다. 중졸이하의 저학력을 가진 여성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68.5%로 80년대 이후 여성근로자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있는 전국적인 추세와 비교해 보면 교육수준에 있어 본 조사대상 중장년 여성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저학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변수	빈도	백분율 (%)
연령		
35-40세	201	42.7
41-50세	212	45.0
51-60세	47	9.9
61세 이상	3	0.6
무응답	8	1.7
학력		
무 학	6	1.3
국 졸	128	27.2
중 졸	185	39.3
고 졸	144	30.6
전문대졸	2	0.4
대졸이상	1	0.2
무 응 답	5	1.1
계	471	100.0

2. 중장년 근로여성의 가족구조적 특성

1) 가족구조

조사대상 중장년 근로여성의 가족구조적 특성을 혼인상태, 가족의 소득, 가족형태 및 가족수, 그리고 자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6> 참조). 조사대상자의 혼인상태를 보면 기혼은 전체 응답자의 88.8%로 중장년 여성 근로자의 대부분이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는 6.7%였고, 미혼인 경우도 2.4%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 전체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혼인상태를 조사한 연구들에 의하면 미혼여성이 전체 여성근로자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이 중장년 여성근로자들이므로 이들의 연령특성상 대부분이 기혼여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 여성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본인의 소득과 그 배우자의 소득, 그리고 기타 수입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여성근로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4만원에서부터 150만원 까지 분포하였다. 이들의 월평균소득은 약 53만원으로 1993년도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여성의 평균소득 63만 3,000원과 비교할 때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소득은 전국보다 약 10만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남편의 월평균 소득은 소득이 전혀 없다는 응답에서부터 400만원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 남편의 월평균 소득은 약 90만원에 달하였다. 이를 전국 남성의 월평균 소득 111만 7,000원 (통계청, 1994) 에 비교해 보면 조사대상자 남편의 월평균 소득은 전국보다 약 20만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조사대상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을 포함한 것으로 계산한 결과 응답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42만 7,822원으로 1995년 조사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91만 1,100원 보다는 약 48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가족의 형태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75.1%가 부부로만 또는 부부 및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었고, 부부와 자식 그리고 부모가 함께 살고 있는 확대 가족의 경우는 16.4%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구원 수에 있어서는 65.4%가 3-4인 가족이었고, 5인 이상 가족은 28.0%였다. 이 두 사항을 요약해 보면 중장년 여성근로자의 가족은 가족수 3-4인으로 구성된 핵가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조사대상자의 약 97%, 즉 거의 모든 응답자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중 미취학 아동이 5.5%, 초등학교 23.5%, 중고생이 38.9%, 고졸 이상이 32.1%였다. 이와 같은 자녀의 학력분포는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중장년층임을 감안해 보면 쉽게 설명이 가능해 진다. 이들은 생애의 주기에 있어 이미 미취학 아동을 둔 시기를 지나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중년여성, 또는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녀를 둔 장년여성이라는 점이다.

<표 6> 중장년 근로여성의 가족구조적 특성

변수	빈도	백분율 (%)
혼인상태		
미혼	11	2.3
기혼	411	87.3
이혼	8	1.7
별거	2	0.4
사별	31	6.6
무응답	8	1.7
가족의 소득		
50만원미만	31	6.6
50-100만원	61	12.5
101-150만원	105	22.4
151-200만원	105	22.4
201-250만원	36	7.9
251-300만원	8	1.7
300만원이상	3	0.7
무응답	122	25.8
가족의 형태		
부부	21	4.5
부부+자녀	331	70.3
부모+부부	8	1.7
부모+부부+자녀	77	16.3
독신	7	1.5
기타	25	5.3
무응답	2	0.4
가족수		
1-2인	31	6.6
3-4인	308	65.4
5인이상	132	28.0
계	471	100.0
자녀의 학력 (중복응답 포함)		
미취학아동	29	5.5
초등학생	120	23.5
중고생	202	38.9
고졸이상	167	32.1
계	518	100.0

2) 가족생활의 문제

한편 중장년 여성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가정생활의 문제점과 의논 상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 7> 과 같이 나타났다. 이 표에서 보면 자녀교육이 28.6%로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었으며, 경제적 어려움 23.9%, 가족내 건강문제 12.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27.1%나 되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가장 큰 문제는 자녀교육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교육상의 어려움으로는 학습부진 및 진학문제, 자녀의 성격문제, 과외비 부담, 학비부담 등을 들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응답내용은 앞서 제시된 이들의 가족구조적인 특성과 연결된 것으로 즉 핵가족으로 구성된 이들의 가족은 이미 중고생의 자녀를 두고 있는 시기이므로 자녀교육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수입 역시 상대적으로 빈약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문제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장년 근로 여성들은 주로 가족이나 친지에 의존해 문제를 상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생활의 문제로 인한 정서·심리적 문제로 전문가나 상담원을 찾는 경우는 0.4%만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전문적인 사회사업 서비스를 인식하거나 활용하기보다는 가족 등의 비공식적 지지체계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7> 중장년 근로여성의 가족문제와 상담대상

변수	빈도	백분율 (%)
가족생활의 문제		
문제가 없다	126	26.8
시부모와의 갈등	13	2.8
편과 불화	10	2.1
자녀교육	133	28.2
가족의 건강문제	58	12.3
경제적 어려움	111	23.6
기타	14	3.0
무응답	6	1.3
문제의 상담대상		
없다	36	7.6
가족 및 친척	329	69.9
친구나 이웃	50	10.6
전문인이나 상담기관	2	0.4
종교인 (목사, 신부등)	33	7.0
기타	13	2.8
무응답	8	1.7
계	471	100.0

3. 중장년 근로여성의 직장내 복지현황

1) 취업동기

조사대상자의 취업동기를 <표 8> 에서 보면 '보다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싶어'가 전체 응답자의 47.7%,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워져서'가 28.3%, '가정의 생활비를 책임지기 위해'가 13.2%순 이었다. 이들 3가지 응답을 경제적인 것으로 간주할 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취업을 한 경우가 89.2%로 응답자의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여가를 활용하고 싶어서' 나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사회참여를 하고 싶어서' 의 비율은 약 10% 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중장년 여성근로자는 자아성취보다는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동기가 학력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을 이용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8> 에서와 같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력의 경우 경제적인 요인이 주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학력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요인 외에도 '여가를 활용하고 싶어서' 또는 '사회참여를 위해' 취업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즉 저학력에 비해 고학력으로 갈수록 취업원인에 있어 비경제적인 요소가 추가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8> 취업동기

동기\학력	취업	가정생활비 책임	맞벌이, 경제적 윤택	사회참여	여가활용	합계
무학	1(0.2)	5(1.1)	-	-	6(1.3)	
국졸	28(6.0)	94(20.4)	-	6(1.3)	128(27.8)	
중졸	20(4.3)	149(32.4)	3(0.6)	10(2.2)	182(39.6)	
고졸	11(2.4)	103(22.4)	10(2.2)	17(3.7)	141(30.7)	
전문대졸 이상	1(0.2)	1(0.2)	-	1(0.2)	3(0.7)	
합계	61(13.2)	352(76.5)	13(2.8)	34(7.5)	460(100.0)	

$\chi^2=37.157, df=12, p<0.01$

2) 직장내 복지시설 현황 및 만족도

직장내 복지시설 현황 및 만족도는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직장 내에 있는 복지시설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 79.6%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복지시설의 대부분이 식당 (47.4%) 이나 휴식공간 (13.8%) 등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예 없다는 응답도 20%나 되었다.

<표 9> 직장내 복지시설 현황 및 만족도

변 수	빈 도	백 분 율(%)
직장내 복지시설		
없 다	93	19.7
식 당	216	45.9
체육시설	20	4.2
도서실	21	4.5
휴식공간	63	13.4
기숙사	40	8.5
기 타	3	0.6
무응답	15	3.2
직장내 복지시설 만족도		
매우불만	54	11.5
불만	97	20.6
그저그렇다	252	53.5
약간만족	33	7.0
매우만족	11	2.3
무응답	24	5.1
계	471	100.0

복지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불만이 33.8%, 만족이 9.9%, 그저그렇다 56.4%로 대체로 복지시설에 대해 불만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복지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시설은 노동자의 직장생활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며, 임금수준이 낮은 여성근로자에게 노동의욕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한다 (정연양, 1995) 고 볼 때, 복지시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본 조사로 볼 때 직장내의 복지시설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있어도 그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복지시설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3) 직장 외부의 복지시설

직장 외부의 복지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표 10> 을 보면 전체 응답자의 79.6%가 없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이 직장의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의 조사에서 직장내 복지시설이 식당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여성근로자들은 그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외부의 시설을 찾지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직장내 또는 직장 차원에서의 복지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보여주는 것이다.

<표 10> 외부 복지시설 이용도

응답	빈도	백분율(%)
이용한 적이 없다	348	73.9
종합사회복지관	29	6.2
노인복지시설	6	1.3
아동복지시설	8	1.7
근로복지관	24	5.1
기타	22	4.7
무응답	34	7.2
합계	471	100.0

4. 중장년 근로여성의 복지 프로그램 욕구

중장년 근로여성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나열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 가장 선호하는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를 연령과 학력별로 나누어 <표 12> 과 <표 13>에서 정리하였다. <표 12>에서 근로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근로자 알뜰 구판장'이 전체 응답자의 20.7%로 가장 높았고, 의료서비스 (14.6%), 교양교육 (11.8%), 법률, 가정, 교육 등의 일반상담 (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장년 근로여성의 가정 문제중 경제적인 것이 가장 큰 것으로 지적되었음을 감안할 때 가정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뜰구판장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상담서비스의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비록 현재 가족문제 상담을 다른 가족에 의존하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원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전문적 상담서비스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를 연령에 따른 선호 프로그램으로 분류해 보면 35-40세, 그리고 41-50세의 근로여성의 경우 근로자 알뜰구판장, 의료, 교양강좌, 상담서비스 순으로 선호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1세 이상의 경우 의료와 점질방, 그리고 알뜰구판장의 순으로 나타나 중년여성들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알뜰구판장과 의료서비스는 모든 연령층에서 선호

하는 프로그램으로 나타났고, 중년 여성의 경우 교양이나 상담 프로그램을 선호한 반면 장년층으로 갈수록 찜질방 같은 프로그램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연령별 복지 프로그램 선호도 (중복응답포함)

응답	35-40세	41-50세	51세 이상	합계(%)
탁아시설	39	20	7	66(5.8)
탁노소(일일노인보호시설)	6	14	7	27(2.4)
일반상담(법률,가정,교육등)	57	59	10	126(11.1)
의료 서비스	61	84	25	166(14.6)
야간학교	21	19	5	45(4.0)
직업 재교육	14	10	3	27(2.4)
교양강좌	59	69	6	134(11.8)
취미모임방	53	48	11	112(9.8)
노래방	13	24	1	38(3.3)
근로자 알뜰 구판장	102	110	24	236(20.7)
찜질방	25	36	25	86(7.6)
비디오 감상실	10	4	0	14(1.2)
어린이공부방	37	15	2	54(4.7)
기 타	3	2	2	7(0.6)
합 계	500(43.9)	510(44.8)	128(10.6)	1138(100)

한편 <표 13>에서 학력에 따른 선호 프로그램을 보면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경우 알뜰구판장, 의료, 찜질방의 순으로 선호도를 나타냈으며, 중졸의 경우 알뜰구판장, 의료, 상담의 순이었다. 고졸의 경우 교양강좌, 알뜰구판장, 의료서비스, 상담서비스 순으로 선호하였다. 전문대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경우 교양강좌나 노래방 프로그램을 선호하였다. 알뜰구판장과 의료서비스는 모든 연령층에서 그랬던 것처럼 모든 학력계층에서 선호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며, 고졸이상의 고학력으로 갈수록 교양강좌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학력별 복지 프로그램 선호도 (중복응답포함)

응답	초등졸 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 이상	합계(%)
탁아시설	15	30	20		65(5.7)
탁노소(일일노인보호시설)	10	11	6		27(2.4)
일반상담(법률,가정,교육등)	32	57	40		129(11.3)
의료 서비스	53	69	44	1	167(14.6)
야간학교	18	19	10		47(4.1)
직업 재교육	8	7	12		27(2.4)
교양강좌	13	46	70	3	132(11.5)
취미모임방	20	46	47	1	114(10.0)
노래방	14	13	10		37(3.2)
근로자 알뜰 구관장	74	98	63	3	238(20.8)
찜질방	44	31	11	1	87(7.6)
비디오 감상실	2	6	6		14(1.2)
어린이공부방	16	26	12		54(4.7)
기 타	3	3	1		7(0.6)
합 계	322(29.2)	462(40.3)	352(30.7)	9(0.8)	1145(100)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산업화와 고도의 경제성장에 있어 주역이었음에도 국가적인 대책이나 복지적인 측면에서 소외되어 온 중장년 여성근로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생활특성 분석을 중심으로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이루어졌다. 제조업체의 약 24%가 있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출산후 증가되고 있는 중장년 여성근로자들의 일반적 특징, 가족구조적 특성, 직장내 복지 현황, 복지 프로그램 욕구 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경기도의 중장년 근로여성을 확률적으로 표집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중장년 근로여성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과 그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방단체가 중장년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도움자료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중·장년 여성근로자들은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여성들로

대표되며, 학력은 전국적으로 비교할 때 낮은 편이었다. 이들의 가족구조적 특성을 보면 대부분이 기혼으로 3-4명의 핵가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노동과 함께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을 갖고 있는 이들은 직장에서의 고된 작업 외에도 자녀의 학업진로와 제반 가정사의 전담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까지 추가되어 힘겨운 일상을 꾸려 나가고 있는 실정이었다. 즉 이들에게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부양해야 할 자녀와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가 가장 큰 가족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층의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동일한 것으로 빈곤 여성의 디스트레스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의 학업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인숙, 1994; 이광자와 조희일, 1993). 근로여성들은 가정 내에서의 심리적 문제나 어려움을 거의 친척이나 친지를 통하여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적인 도움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분석 결과를 보면 상담서비스에 대한 희망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현실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는 그러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취업동기는 다른 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적인 욕구가 거의 90%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심화되었다. 남편의 소득과 근로여성들의 소득을 합한 가족의 소득이 도시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훨씬 미달하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근로여성들을 위한 직장내의 복지시설로는 식당이나 휴식공간 등이 전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외부에서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여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직장내에서 이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장년 근로여성들이 원하는 복지 프로그램으로는 알뜰구판장, 의료서비스, 교양교육 및 상담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프로그램 욕구는 연령에 관계없이 비슷하였다. 그러나, 학력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저학력의 경우 알뜰구판장 등 경제적인 욕구가 큰 반면 고학력에서는 교양교육 등의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중장년 근로여성의 특성 분석과 프로그램 욕구를 중심으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근로복지대상영역의 확대

여성근로복지의 대상이란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가족 등 피부양자를 포함한 전 가족을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본 조사결과 근로여성들은 가정내의 문제로 자녀양육, 경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다. 이는 여성근로자 자신의 문제가 결국은 가정을 떠나서는 생각될 수 없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 근로복지는 사회보장과 별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여성과 노동을 함께 통합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젠 복지후진국에서 접근하는 요보호 계층에 대한 개별적 복지의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전체 근로여

성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복지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2) 경제적 욕구충족을 위한 프로그램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장년 여성근로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알뜰구판장이었다. 중소기업내 여성근로자들의 취업동기는 고학력여성근로자와는 다르게 소득향상이라는 경제적 욕구가 가장 높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소득이 비교적 낮은 이들을 위해 알뜰구판장 등 실질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알뜰구판장 외에도 자녀와 연관된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녀를 위한 장학금을 대여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직하다.

3) 직장내 공식적 프로그램의 확충

직장내 복지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식당을 제외하고는 전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여성들은 그들의 복지욕구를 외부에서 찾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직장내에서 마련되어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국가나 기업차원에서 복지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을 인식시켜야 함은 물론 실제로 복지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으로는 근로여성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과 의료 서비스 등이 예가 될 것이다.

4) 기타 : 건강과 문화복지의 필요성

욕구조사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이들의 욕구는 경제적 욕구 다음으로 건강과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복지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보다 나은 문화생활과 건강한 삶을 이루기 위한 욕구는 기본적 욕구이므로 문화와 교양, 여가 활동 프로그램은 강화하고 체육관이나 에어로빅 등 체력을 향상시키는 사회체육 훈련장의 활용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 김수곤과 심경옥. 1984. 한국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요인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김양희. 1991. "맞벌이 가족을 위한 가족정책". 한국가족학 연구회편. 현대사회와 가족문제. 서울:
울:
- 김인숙. 1994. "빈곤여성의 사회적 환경요인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 253-264.
- 김종의. 1994. "한국근로여성의 근로조건실태 및 개선방안". 아세아여성연구. 33. pp. 121-139.
- 김태홍. 1996. "경제활동 활성화와 능력개발". 지방자치제와 경기여성정책의 방향. 수원 : 경기
도청.
- 박경숙. 1996. "지방화 시대와 경기도 여성복지 정책의 방향". '96 경기 여성정책 토론회.
- 박숙자. 1996. "여성과 노동시장". 여성과 한국사회. 서울 : 사회문화연구소.
- 이광자와 조희일. 1993. 저소득층 여성복지 실태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욕구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여대 농촌발전연구논총. 18. pp. 83-111.
- 이은주. 1994. "러시아 도시 기혼취업여성의 이중 역할부담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
회 자료집.
- 이혜경. 1990. "사회복지관련법과 여성". 한국여성학.
- 이혜경. 1997. "기혼 여성취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과제". 평택대학교 논문집. 9. pp. 119-136.
- 정연양. 1995. 여성근로자 관리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 황영자. 1990. "근로여성과 택아사업". 사회복지. 가을호. pp. 81-104.
- 경기도. 지방자치제와 여성정책의 방향. 96경기여성정책 토론회. 1996.
- 경기도. 경기도 공장등록명감. 1995
- 노동부. 경제활동인구연보. 1994.
- . 노동백서. 1995.
- 상공자원부. 상공자원백서. 1994.
- 여성개발원. 여성관련사회통계지표. 1994.
- 통계청. 고용동향조사. 1995
- 통계청. 고용구조조사 보고서. 1993, 1994
- Hegen, J. & V. Davis. 1992. "Working with Women: Building a Policy and Practice Agenda."
Social Work. 37.

Abstract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Welfare Program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middle-or-old aged Woman Workers.

Han, Hye Bin · Chung, Soon Dool

This study is to develop welfare program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middle-or-old-aged woman workers in manufacturing industry. 7 cities and 2 counties in Kyunggi-Do were selected for survey considering their accessibility. Total 471 woman workers were interviewed personally and the data has been analyzed using SPSS.

First, the findings show that their family structure is characterized by nuclear family and they have school-aged children who need someone else's care, therefore they need child related services to help them such as after school care. Second, they have few welfare facilities in their work and they have never tried to find any outside their work. Thus, it is necessary to prepare welfare programs in their working place. The welfare programs they need most are discount stores, medical service, counseling service, and so on.

In conclusion, the welfare needs of woman workers cannot be thought without considering family structure of woman workers, the degree of welfare facilities in the work, and their welfare needs.

Tel : 032)3409-354

Fax : 032) 349-9400

E-mail : sdchung@stu.ac.kr.